농진청-양봉협, 수벌 생산 소초광 기술이전협약 체결

2010년 4월7일까지 1년간 10만개

한국양봉협회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대강당에서 국유특허 산업체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.

기술이전 되는 제품은 '수벌생산용 맞춤 소초광' 으로 최용수 박사 외 8명의 연구원이 연구 개발하여 특허출원한 것이다. 〈41p 기고 원고 참조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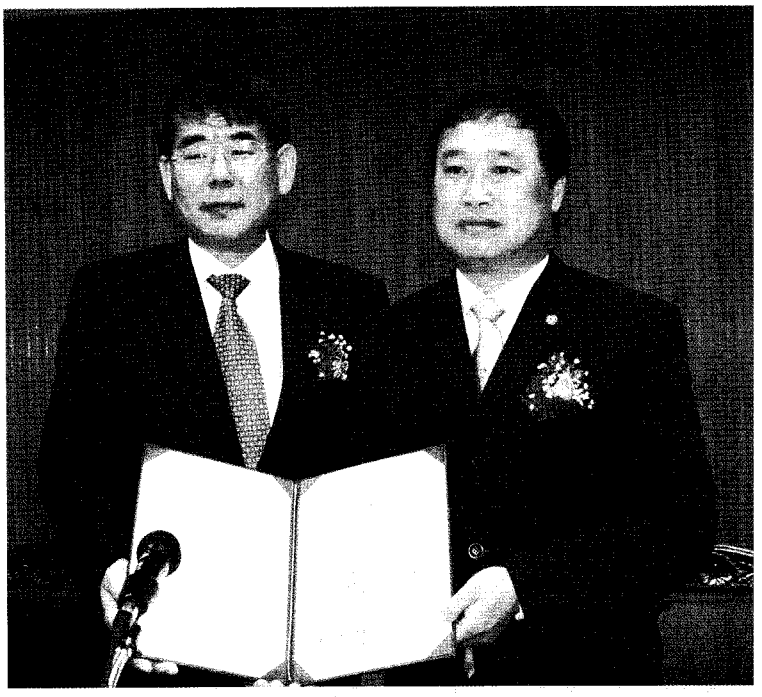
기술개발배경에 대해 이광길 잠사양봉소재과 과장은 "양봉농가는 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일정 소득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"며 "수벌번데기와 같은 양봉부산물로 소득을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해 연구되었다"고 밝혔다.

▶ 조은기 국립농업과학원장과 배경수 회장이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에 사인하고 있다.

양봉농가 부가가치 창출 기대

또 이광길 과장은 수벌번데기는 상품화하기 좋고 영양성도 높아 식용 또는 건강식품용으로 소비자에게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.

조은기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"농과원에서 연구한 것이 양봉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"며 "양봉과 인간과는 뗄 수 없는 관계인만큼 양봉연구가 궁극적으로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"라고 강조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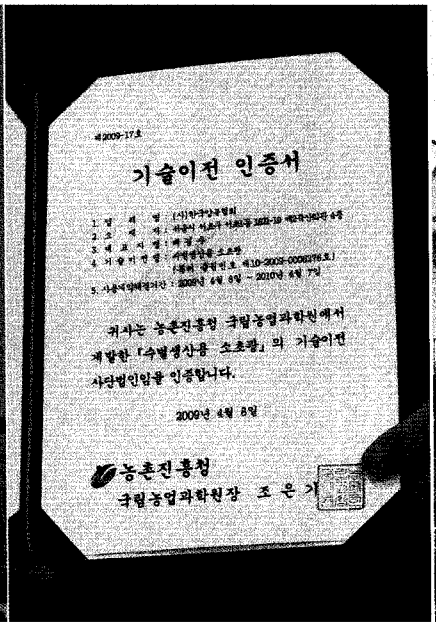


▶ 기술이전서 수여
좌 : 조은기 국립농업과학원장 우 : 배경수 회장

배경수 한국양봉협회장은 "오늘은 양봉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산업규모가 확대되는 뜻 깊은 날"이라며 "양봉농가들이 이번 기술 이전으로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"고 밝혔다.

한편 기술 이전은 수벌번데기 소초광 10만개로 실시이전료는 300만원이며 2010년 4월 7일까지 1년간 특허이전을 실시한다.

▶ 수벌생산 소초광을 개발한 최용수 박사



▶ 기술이전 인증서

▶ 기술이전행사 전경